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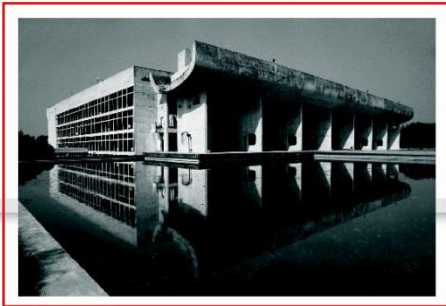
[Art & Design Now] 찬디가르를 찬미하다

May, 2016

EXHIBITION

Art & Design Now

눈과 귀를 열어두고 <에비뉴얼>이 전하는 문화 예술계 소식에 주목하라.
예술을 가까이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싶어 웃으려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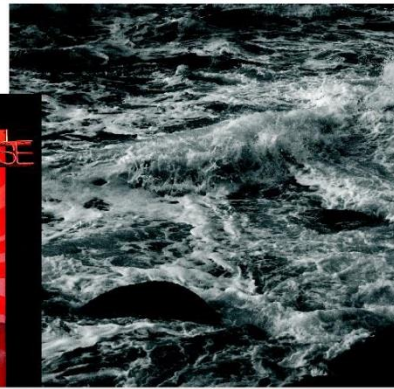


4

6



5



4 찬디가르를 찬미하다

인도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다. 건축가 겸 디자이너인 피에르 잔느레는 인도의 수많은 미지의 도시 중 찬디가르라는 국제도시에 주목했다. 그는 이 도시에 거주하며 현대적 감성을 담아 도시 설계에서부터 건축물, 내부 디자인과 의자, 탁자 그리고 조명에 이르는 세부 조성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목재, 대나무, 끈과 콘크리트, 건축 자체들을 활용한 가구 디자인은 디자인의 미학을 추구하면서도 지역 기반의 특수한 문화를 고려한 피에르 잔느레의 세심함이 담겨 있다. 전시는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국제 갤러리에서.
문의 3210-9895

피에르 잔느레 '찬디가르 국제회의장' 전경' 사진, 2008.

5 미친년 발화하다

한국의 페미니즘 예술이란 무엇일까? 박영숙 작가의 사진전을 통해 그 어려운 이야기에 한 발자국 다가가보려 한다. 한국 페미니즘 사진의 대모로서 예술의 가치와 다양성을 표현하는 그녀의 사진은 한국 여성의 현실을 일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사회의 자신, 역할과 욕망, 약제와 분출 사이의 갈등에서 치라리 미치고 싶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놀이를 포착하는 것이 특징. 또한 여성의 신체, 페미니즘과 관련된 시각적 제한의 문제, 페미니즘의 이론적 탐구를 심도 있게 담고 있다. 전시는 5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아라리오 갤러리 한양에서.
문의 736-5700

박영숙 'Imprisoned Body, Wandering Spirit #1', C-print, 120x120cm, 2002/박영숙 'A Flower Shakes Her #5', C-print, 120x120cm, 2005.

6 영원을 노래하다

예술가들은 '컬러바레이션'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상상 이상의 예술 작품을 만들고 한다. 프랑스 작가 사단 아피프는 예술적 협업이라고 불리는 그동안의 독특한 예술 제작 방식으로 독자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존의 작업에 제2자의 창작이 더해져 새로운 단계의 작업을 제시하는 것. 이번 프로젝트는 아르튀르 랭보의 시 '영원'에서 영감을 얻어 랭보의 시에 담긴 '영원'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표현했다. 이렇게 창작된 노랫말이 21점의 사진과 이미지 작업으로 함께 공개된다. 사단 아피프의 개인전은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문의 544-7722

사단 아피프 'Feedback: Blue Time versus Suspense', Institut d'Art Contemporain, 2013./사단 아피프 'L'Etrange', Digital Print on Plexiglass, 2016.